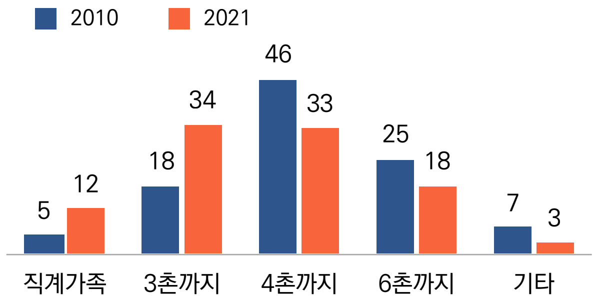
2.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

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, ‘4촌 이상’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아!

-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‘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’ 결과에 따르면,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는 ‘직계가족’ 12%, ‘3촌까지’ 34%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(46%)가 4촌 이상은 친족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0년 같은 조사에서 ‘3촌까지’로 응답한 비율이 18%였는데, 2021년(34%)에는 16%p 크게 증가하였고, ‘4촌까지’는 13%p 하락했다.
- 친족 범위를 ‘직계 가족’으로 한정지은 응답 역시 2010년에는 5%에서 2021년에는 12%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.
- 현행 민법이 친족의 범위를 ‘8촌 이내 혈족/6촌 이내 인척’ 규정한데 비하면 친족의 인식 범위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띄며,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친족 범위(2010 vs 2021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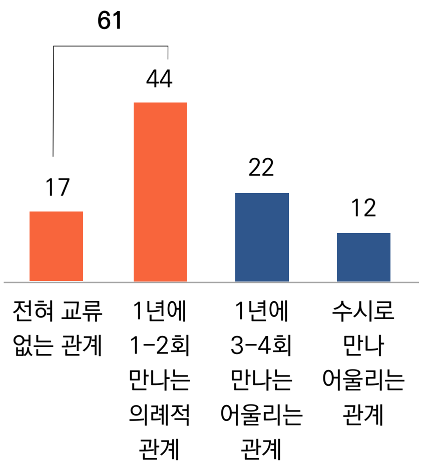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전국경제인여합회 보도자료, ‘친족범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9.14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ARS 조사, 2021.07.06.-07.0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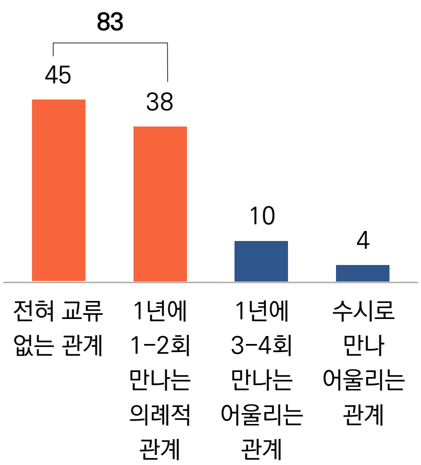
● 4촌 친척과 관계, 61%가 전혀 교류없거나 연 1-2회 만나는 정도!

- 친척과 관계에 있어서 ‘의례적 관계’(전혀 교류없거나 연 1~2회 정도 만남)라고 응답한 비율이 4촌과는 61%, 6촌과는 83%가 응답해 ‘4촌 이상’의 친척 관계에는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, 4촌은 17%, 6촌은 45%로 나타났다.

[그림] 4촌 친척과 관계 (%)



[그림] 6촌 친척과 관계 (%)



*자료 출처 :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, ‘친족범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9.14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ARS 조사, 2021.07.06.-07.07)